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KWACS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세션

젠더화된 청년 담론과 여성 혐오

일시 2023년 11월 4일(토) 14:15~15:45

주최/주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장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세션

제2세션
(14:15~15:45)

젠더화된 청년 담론과 여성 혐오

사회 : 손승혜(세종대)

발표 1	뉴스 속 여성의 표상 방식에 관한 연구 발표 : 이재원(이화여대)
발표 2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청년 담론과 재생산: 청년 담론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발표 : 홍주현(국민대)
종합토론	김수아(서울대) 도우리 (독립연구자/작가) 이소진(연세대 박사과정/작가) 이은아(이화여대) 정용국(동국대) 한희정(국민대)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세미나실(L307호)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세션

젠더화된 청년 담론과 여성 혐오

뉴스 속 여성의 표상 방식에 관한 연구

이재원(이화여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가을철 학술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 세션

뉴스 속 여성의 표상 방식에 관한 연구

2023. 11. 4.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문제제기

연구의 필요성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분석결과

논의



문제제기

기사의 성별 표기 문제

-사회를 간접적으로 바라보게 해 주는 미디어 기사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루는 방식은 젠더의 역할을 자연화(naturalization)(Barthes, 1997)

성별 표기 관련 실천들

-여성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뉴스기사_남성 성별_표기운동'(2015년~)(유성애, 2015). 피해자 여성을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 방식은 가해자의 범죄에 관한 경종이나 재발 방지에 관한 논의를 희석, 여성을 흥미 위주로 소비

-과거 남성은 성별을 표기하지 않고 여성만 성별을 표기하던 <연합뉴스>의 관행 변화. 기사에 남녀 표기를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남성과 여성을 모두 표기하는 원칙(김진수, 2018).

아동학대 기사 속 가해자 부모의 성별표기 방식은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표상하는가?

연구의 필요성

저널리즘 관점의 여성주의 연구

-저널리즘 맥락에서 혐오나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여성주의 연구들

-> 기존의 저널리즘 연구들은 성 고정 관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미디어에 재현되는지 검증하는데 주력(양우정·금희조, 2012).

-> 강남역여성살인사건 보수지(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진보지(젠더화된 폭력과 여성혐오의 극단적 사례)(홍지아, 2017).

-> 성별 갈등을 다룬 언론보도가 외부 담론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김수아, 2019)

->성평등 기사와 양성평등 기사를 <조선일보>와 <한겨레> 비교 분석한 연구(조수선, 2019) 등

기사 속 가해자 여성(엄마)의 표상 방식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배경

여성혐오

-여성을 동류 인간으로 인식하면서도 여성혐오를 일삼을 수 있음. 여성의 사회적 존재는 단순히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베푸는 존재. 한 여성에게 인정된 인간성이란 도덕적 자유의 측면에서 **의무감은 과도한 동시에, 다른 부분에서 부족할 가능성.**

성차별주의가 가부장제 사회질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한 갈래라면, **여성혐오는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근거한 규범과 기대를 단속하고 강요하는 체제.** 성차별주의가 과학적이라면, 여성혐오는 도덕적.

여성혐오자는 단지 여성혐오적 사회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해온 사람인지도 모름. 혹은 신념, 욕구, 행동, 가치관, 충성심, 기대, 수사적 표현 등 여성혐오적 사회분위기의 막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 들인지도 모름.

-(Manne, 2018/2023)

이론적 배경

여성 호명 방식의 변화

-양공주(전후) -> 치맛바람(1960년대) -> 공순이, 호스테스(1970-1980년대) (주창윤, 2011)

-> 월드컵녀, 개동녀, 된장녀, 루저녀, 김치녀(2000년대)

-맘충

->젊은엄마에 대한 혐오표현(양혜승, 2022; 홍성수, 2018)

->유모차부대(2008 촛불광장)의 변질-나쁜 양육 뜻하는 민폐맘으로 변질. 취업엄마/전업엄마, 좋은양육/나쁜양육으로 모성 분리(이인영, 2023)

->맘충 기사-단순 보도 형태로 논란 확대 재생산, 맘충 호명 대안 광범위해지나 대안 담론 부재 (김이경 유이숙, 2019)



이론적 배경

아동학대와 모성 신화

-범죄 재현은 대중에게 범죄 현실 인식의 준거를 제공(양정혜, 2010)

-아동학대 사망사건 기사분석(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2013)

->가해자는 미혼모, 친모, 동거녀 및 계모, 친부의 순.

친부에 비해 친모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동의 주 양육자가 친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141쪽)

->아동살해 이유는 미혼모나 미혼부모에 의한 신생아살해, 양육능력 부족, 산후우울증,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순.

->언론에 중점보도된 사건에서 발견된 주제는 **범죄현실의 구성-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 부실, 처벌 미약 등

이론적 배경

아동학대와 모성 신화

-아동학대 재현과 모성신화(이소현, 2022)

영화 ‘미쓰백’ ‘어린 의뢰인’ - 아동학대 보도로 구성된 재현 관습 답습.

계모 가해자, 친부 방치자 구조로 1차 돌봄 책임자 여성으로 상정, 성역할 고정관념

아동학대 범죄의 일탈성 부각, 정상가족 담론 강화

-트위터와 뉴스기사 분석을 통해 본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정수정 김소은 정익중, 2018)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린 시절 접하게 되는 동화의 키워드와 연관

->대중의 인식-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강조/재결합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우려

연구방법

연구문제

1. 아동학대 기사 속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호명되는가?
2. 아동학대 기사 속 계모는 어떤 담론으로 구성되는가?

연구방법

-종합일간지의 ‘아동학대’ 관련 기사 643건

기간 22.9.1.-23.8.31.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전국일간지(경향 국민 내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 통합분류(사회) -> 사건사고분류(범죄 사고)

연구문제1. ‘아동학대’ + ‘친모’ ‘친부’ ‘계모’ ‘계부’ 등 상세분석 사건사고분류(범죄 사고 사회)

연구문제2. 계모 등장 아동학대 기사 담론분석

분석결과

1) 아동학대 기사 속 부모 호명 방식

(1) 등장비율 엄마 > 아빠

-가해자 성별- 엄마가 아빠에 비해 2-14배
(‘아동학대’와 함께 상세 검색시)

(2) 혼인 형태 구분 표기

-친부모, 계부모, 미혼부모 등 혼인 여부 및
형태 구분지어 가해자 부모를 호명

분류	검색어	기사갯수
친부모	친모	503
	친부	254
계부모	계모	158
	계부	55
미혼부모	미혼모	57
	미혼부	4
엄마아빠	엄마 (친모 계모 제외)	438
	아빠 (친부 계부 제외)	156



분석결과

1) 아동학대 기사 속 부모 호명 방식

- 아동학대 범죄 현실 속 가해자부모 재구성

*아동학대범은 아빠보다 엄마가 많다

-> 주양육자는 엄마라는 고정관념을 확대

서울신문
갓난아이 중상임한 '산후우울증' 엄마... "누가 그 애 돌보나" 선처

시해·아생
2023.08.29 | 이현열



▲이미지 서울신문 db

산후우울증으로 갓난아이를 때려 중상해를 입힌 친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더라도 누구나 다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다. 죄책은 무감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엄마 가해자

- 감정적 비이성적 존재/ 무책임한 존재

국민일보

갓난아기 4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15년

서해·사건·사고
2023.08.26 | 정인영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처벌 특별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첫수

분석결과

1) 아동학대 기사 속 부모 호명 방식

- 아동학대 범죄 현실 속 가해자부모 재구성

*엄마는 필수, 아빠는 선택

-> 별거, 이혼 등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책임은 누락

씨 아들 B군은 전날 오전 6시쯤 "아이가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왼쪽 허벅지 골절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날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함에 따라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을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검사를 의뢰했다.

단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안고 흔들어 준 것 밖에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친모 C(30)씨도 "(아이가 왜 숨졌는지) 모르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의 범행 동기, 친모의 사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모성에 없어' '신생아 실다'... 첫머리 단정 숨지게 한 친모의 검색어

서해·사건·사고
2023.07.14 | 김승훈



생후 40일이 된 첫머리를 발바닥에 재차 내던지 숨지게 한 친모는 평소 자녀에게 부정적 감정이 컸고, 분노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검찰은 비정한 엄마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에 없어" "우는 소리가 싫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14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 가해자 아빠 범죄에 친모 가담 조사/가해자 엄마 기사에 아빠 언급없음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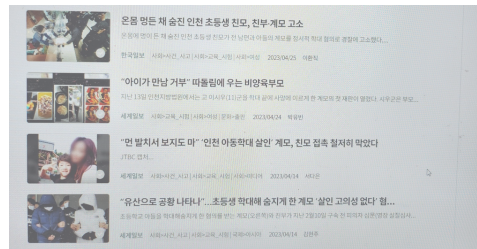
1) 아동학대 기사 속 부모 호명 방식

- 아동학대 범죄 현실 속 가해자부모 재구성

*친부모 더 자주 등장해도 계부모, 미혼부모 구분해 호명

-> 정상가족 담론 확산

-> 계부모에 대한 설화적 관념 강화



국민일보
'3살 아들 살인' 계모 2심서 징역 17년→14년 감형, 왜

사법·사건·사고
2022.11.18 박성영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3년 감형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학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범행이 어느 정도는 우발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것과 7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

분석결과

2) 계모 담론 구성

-극화 장치로서 '계모' 수사

-> 자극적 제목

저울신문
어린 아들이 음식을 쓰레기 먹인 계모 징역2년

사법·사건·사고
2022.10.05 한성봉



▲법원형사지 5층, 연합뉴스

입양한 10살 아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싱크대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극 강제로 먹인 양모에게 징역2년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국경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

경향신문
12살 아들 학대에 숨지게 한 계모 징역17년 선고에 검찰, 항소

사법·사건·사고
2023.08.30 박준형 기자 henryus@kyunghyang.com



▲12살인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아들과 친아빠가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양상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12살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계속해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마 A씨(43)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25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년을 선고받은 아빠 B씨(40)에 대해서도 항소

-> '양부모' 가해 기사에 '계모' 제목/
'아동학대 and 아빠, not 친부 계부' 검색 기사 제목도
'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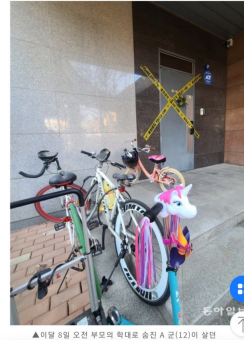
분석결과

2) 계모 담론 구성

-극화 장치로서 ‘계모’ 수사
-> 범죄 재구성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며 악마적 캐릭터로 서사 부여

동아일보
[디지털 동서남북]아동학대도 '재난'이다

서화(국회, 시립)
2023.02.28 공승배



▲이달 8일 오전 부모의 학대로 숨진 A 군(12)의 살던

특히 A 군은 부모가 지난해 11월부터 "유학 준비로 홈 스쿨링을 시키겠다"며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인천시교육청의 '집중관리' 대상에 올랐지만,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A 군의 계모는 A 군이 숨지기 전날에도 담임교사와의 통화에서 감청고시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A 군의 계모가 얼마나 철저하게 A 군을 학교로부터 격리하고, 학대로 몰고갔는지 가능하기 힘들다.

인천시교육청의 집중관리는 담임교사가 한 달에 1번 이상 A 군과 직접 통화해 안전을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적어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30일까지도 담임교사가 A 군과 직접 통화했고, 지난해 12월 1 일에는 A 군과 계모를 직접 학교로 불러 면담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학대 방지 시스템은 A 군의 학대 정황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좀 더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학대 예방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제2의 학대 사망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이례서 나온다.

인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2020년 2427건, 2021년 2789건, 지난해 2024건 등 매년 2000건이 넘는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인천의 아동학대 신고는 3720건으로 전국 17 개 시·도 중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학인한 사망 아동은 인천이 5명으로, 경기도(1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 '계모' '친모'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재발방지를 위한 분석기사에도 '계모'로
저널리즘 구성요소 완성

논의

*가해자 부모의 구성 형태 정보는 현실을 진실하게 재구성하는가?

-엄마 > 아빠

-> 엄마를 주양육자로 호명, 아빠 누락

-> 가해자 엄마의 특수성(비이성적 또는 무책임) 강조로 범죄의 일탈성 부각

---> 정상가족 담론 강화

논의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의 구성 형태는 아동학대 범죄 기사의 필수적 정보인가?

-친부모, 계부모, 미혼부모 등

-> 계모와 친모 갈등 등 표기 필요한 경우 외에도 구분해 표시

-> 계모에 극적 캐릭터 부여로 범죄 재구성

---> 계모에 대한 설화적 담론 강화

논의

*아동학대 문제는 부모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문제, 사회공동체의 문제이지 계모 미혼모 등 개인의 일탈이 아님

*이러한 인식 하에 저널리즘은 섬세하게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으나 아동학대 문제가 자극적 기사의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음

*계모로 대표되는 주양육자 엄마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소비되는 현상에 관한 논의와 자정 필요



감사합니다

*진행 중인 연구이므로 인용을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세미나실(L307호)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세션

젠더화된 청년 담론과 여성 혐오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청년 담론과 재생산:
청년 담론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홍주현(국민대)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청년 담론과 재생산: 청년 담론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홍주현(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 문제 제기

N포 세대, 영끌 족, 결혼 포기,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세대가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이다. N포 세대¹⁾, 영끌 족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청년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나타낸다. 결혼 포기, 저출산은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청년 세대가 비자발적으로 순응한 현실을 보여준다. 저출산은 청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면서 결혼을 기피 하는 청년 세대에겐 원인을 돌리면서 청년 세대와 같이 등장하는 단어다. MZ 세대는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로 1981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통칭한다. 언론에서는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젊은 세대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 언론은 정부의 청년 세대 지원정책²⁾과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³⁾을 전달했다⁴⁾. 김남국 코인 사건 발생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8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의 기자회견과 청년 세력의 반란 움직임에 주목했다⁴⁾.

언론이 청년 세대를 호명하는 방식은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언론이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사건을 정의하고, 언론이 호명한 대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슈메이커 & 리즈, 1996). 언론은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모두 전달할 수 없다. 기자가 특정 요소를 선택하거나 배제하고, 선택한 요소를 강조해서 보도한다. 이것을 프레임(frame)이라고 하는데, 언론의 프레임은 사건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언론이 사건을 프레임 하는 방식은 수용자의 주관적 현실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리즈 & 슈메이커, 1996). 사건

1)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

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희망 저축

3) 국민의 힘 청년 정책 네트워크 출범

4) 김남국 코인 파문에 커지는 청년들의 분노...민주당 MZ 세대도 들고 일어났다, 더퍼블릭, 2023년 5월 14일자,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81>

을 쟁점화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처한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에서 청년에게 귀인 한다면 청년이 처한 현실을 뛰어넘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초저출산, 인구 절벽 등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해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청년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청년 지원 정책이 계속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청년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표상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청년 담론을 살피기 위해 '뉴스와 시사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한 유튜브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청년 담론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에 주목하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봤다.

청년 세대와 함께 이 연구는 청년 담론에서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주목했다. 2, 30대 여성은 청년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돼야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보다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에 주목하고(홍주현·손영준, 2018; 홍주현, 2017),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돌렸다. 여성 개인의 행동을 묘사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피해자 비난 현상을 나타냈다(홍주현, 2017).

이 연구는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청년 담론을 살피고, 언론이 청년 세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규명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문제를 찾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도 청년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혔다.

■ 이론적 배경

1. 미디어의 현실구성 방식 :언론의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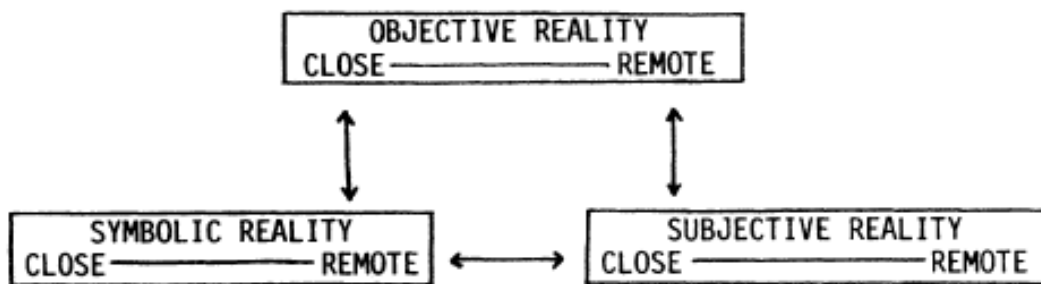
현실구성 이론은 언론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건은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현실(reality)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언론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과 지면의 제약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원을 갖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취재할 수 없다. 매일 뉴스를 생산해야 하는 뉴스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뉴스 가치, 게이트키퍼, 출입처 제도, 특파원 등 유용한 장치를 마련했다(슈메이커 & 리즈, 1996).

뉴스 가치 측면에서 언론은 중요하고, 흥미롭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에 주목한다. 힘이 있고, 중요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자주 보도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이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현실구성이론은 현실(reality)을 객관적 현실,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현실, 수용자의 주관적 현실의 세 개로 구분하고 이들의 관계를 통해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지 설명한다(Adon & Wane, 1984).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객관적 현실로 보는데, 객관적 현실



은 있는 그대로의 일이다. 이 현실을 언론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언론은 조직의 뉴스 가치, 조직의 공적 책무, 조직의 이익, 언론으로서의 책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건을 전달한다. 이를 미디어에 의해서 현실이 구성됐다고 한다. 수용자는 객관적 현실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현실을 접한다. 수용자의 현실은 수용자의 지식수준이나 경험,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고, 개인마다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수용자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언론 보도가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1] 언론에 의해 구성된 현실⁵⁾



엔트만(Entmann, 1993)은 언론이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프레임(frame)으로 설명했다.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시간과 공간, 지면의 제약으로 사건 사고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하거나 배제하고, 선택한 요소를 강조하면서 현실을 보여준다. 현실을 구성하는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들은 현실(reality)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언론이 청년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는 중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 담론과 관련된 주제를 살피고,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중심 단어를 찾았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에 내재된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실제 언론에서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언론이 구성한 현실을 규명할 수 있다.

2. 언론의 경계 규정 : 정상과 비정상

언론이 현실을 보여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홀린(Hallin, 1986)은 언론이 보여주는 세계를 합법적 논쟁영역, 합의 영역, 일탈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언론은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객관성과 균형성을 도모한다고 했다(슈메이커 & 리즈, 1996). 합의 영역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 간에 이견이 없다. 합법적

5) Adon & Mane(1984), p. 307 [그림 1].

인 논쟁영역은 이슈와 관련해 갈등이 존재하고,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공중이 존재한다. 일탈 영역은 사회의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 영역의 주제를 다룰 때 언론은 중립성을 포기한다고 했다. 언론은 사회 체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이 범위를 벗어난 사건, 인물, 대상을 일탈로 규정한다. 일탈로 규정한 행위, 이슈에 대해 언론은 비난하고 비판의 입장이다.

언론은 전쟁, 살인, 범죄 등을 일탈로 규정하는데, 일탈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들이 때로는 정당한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한 CNN의 보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익에 따라 전쟁이 합법적인 논쟁영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일탈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낙인 이론(Bernburg, 2009)은 사회에서 개인이 범죄자나 일탈 행위를 한 사람으로 낙인되면, 낙인되기 전의 행동 패턴과 심리적 요인과 낙인이 결합해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 범죄 행위가 만성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낙인 이론은 범죄의 원인에 주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행위를 범죄라고 호명하고, 범죄자,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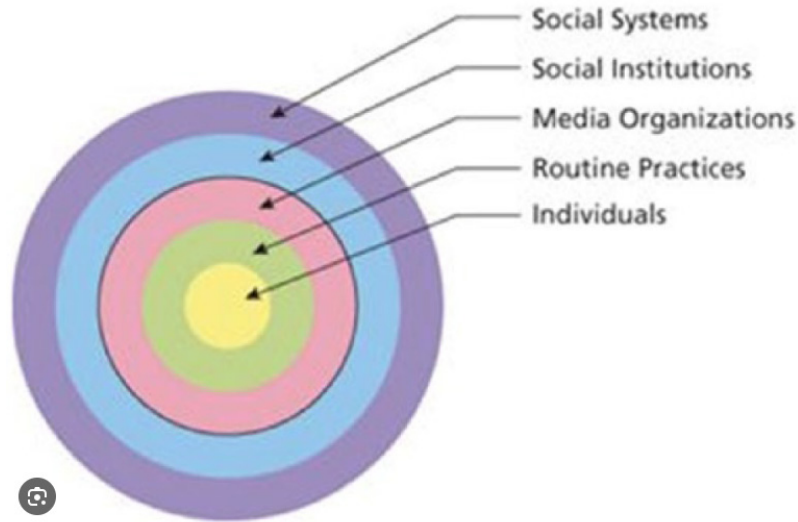
언론이 사건, 개인을 일탈의 영역에 속하게 하는 방법 중에 호명은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을 수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호명함으로써 사건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한 폐렴을 코로나19로 명명한 것은 우한 폐렴으로 부르면 우한 지역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폐렴과 같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우한 지역과 관련이 없고, 폐렴과는 구별된 새로운 병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호명은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언론이 성범죄 사건을 부를 때 피해자 중심으로 부르다든지(손영준, 홍주현, 2018), 20대 여성을 된장녀로 호명하거나 살인진드기, 홍콩 독감과 같이 특정 구성원, 곤충, 병명을 부르는 방식은 수용자가 사건을 인지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언론의 호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언론에서 청년 담론을 다룰 때 청년 세대를 어떻게 호명하는지 살폈다.

3. 계층 모델로 본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뉴스, 드라마 같은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계층 모델로 설명했다. [그림 2]는 이들이 설명한 계층 모델을 보여준다. 원의 가장 안쪽은 기자 개인적 차원으로 교육 수준, 종교, 인종 등이 기사를 작성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다음은 미디어 관행으로 관행은 언론인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언론의 뉴스 가치, 게이트키퍼, 출입처 제도, 특파원 제도 등이 미디어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디어 뉴스 조직의 속성이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이 많아졌다.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 개인, 기관 등 뉴스생산자가 다양해졌다. 이밖에 사회제도와 사회 체계가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 계층 모델로 본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연구는 계층 모델에서 미디어 조직 차원에 주목했다. 다양한 뉴스생산자를 더즈(Deuze, 2003)의 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더즈는 미디어가 진화하면서 전통적인 주류 언론 외에 여러 뉴스생산자가 등장했다면서 온라인 저널리즘을 설명했다. 더즈의 분류를 참고로 뉴스 조직이 전문적인 편집 시스템을 갖췄는지와 뉴스 생산과정에 전문 기자 외에 일반 개인의 참여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전문적인 편집 시스템을 갖추고, 일반 개인이 뉴스 생산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매체로 주류 언론이 있다. 인터넷 매체는 주류 언론에 비해 게이트키퍼가 엄격하지 않고, 시민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시스템 중간, 개인의 뉴스 생산 중간으로 봤다. 개인 채널은 개인의 뉴스 생산 참여는 높으나 전문적인 시스템은 갖추지 않았다.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에 공존하는 다양한 뉴스생산자의 속성을 이같이 살펴보고, 어떤 뉴스생산자가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봤다.

〈표 1〉 유튜브의 뉴스생산자 분류

뉴스 생산과정		개인의 뉴스 생산 참여		
		낮음	중간	높음
전문적인 편집 시스템	높음	주류 언론		
	중간		인터넷 매체	
	낮음			개인 채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소셜미디어에 공존하는 다양한 뉴스생산자 중에서 청년 담론을 확산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이들은 어떤 내용을 확산하는가?

둘째,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는 청년 담론의 정서는 어떠한가? 청년 담론과 정서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소셜미디어의 청년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영향력 상위 뉴스 생산자는 누구인가?

넷째, 소셜미디어 뉴스생산자의 정서에 따라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가?

■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청년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했다. 먼저, 청년 담론 확산 주체 및 정서를 분석하고,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가 누구인지 알아봤다. 끝으로 헤드라인의 정서별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살폈다.

〈표 2〉 연구 문제 및 분석 방법

연구 문제	세부 내용	분석 방법
청년 담론 확산 주체	확산 주체 및 확산 주체별 청년 담론	네트워크 분석 내용분석
청년 담론 정서 분석	헤드라인 정서 분석	내용분석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분석
정서별 뉴스생산자의 메시지 분석	정서별 메시지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2. 자료 수집 방법

유튜브 동영상은 노드엑셀(NodeXL)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집했다. 노드 엑셀을 이용하면 검색어를 입력한 후 원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 동영상 수집 방법은 추천 동영상을 불러오는 것과 동일 id가 댓글을 남긴 두 개의 동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다. 이 연구는 정부에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출시한 2023년 5월 1일부터 분석 시점인 9월 23일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정했다. 분석 대상 동영상 수를 200개로 정하고, 검색어는 ‘청년 세대, 청년 정책’으로 했다. 노드 엑셀은 유튜브 동영상의 제목(title),

설명(description), 댓글(comment), 해시태그(#)에 검색어가 있으면 동영상을 불러온다. 뉴스생산자의 영향력은 여러 중심성 값 중에서 동영상 간에 차이가 큰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기준으로 정했다. 노드 엑셀을 통해 수집한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는 방향성이 있는 데이터이므로 내향 연결 중심성, 외향 연결 중심성 값이 제공된다. 네트워크에서 값의 차이가 두드러진 값을 선택했고, 매개 중심성 값을 고려해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를 선정했다.

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의 수를 합산 것이다. 연결 중심성이 클수록 네트워크에서 여러 노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와 직접 연결된 모든 노드 간 거리를 측정한 값으로 매개 중심성이 크면 네트워크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Smith, Shneiderman, Smith, 2011).

다음으로 청년 담론과 2030 세대 여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피기 위해 네이버에서 여성 관련 언론 보도를 수집했다. 유튜브 동영상과 같은 기간으로 언론 보도를 수집했다.

3. 분석 대상 네트워크 속성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 결과 196개의 동영상이 수집됐고, 이 동영상들은 단일 연결 349, 중복 연결 698을 나타냈다. 전체 연결은 1,047이었다.

〈표 3〉 네트워크 속성(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 속성	값
Vertices	196
단일 연결(Unique Edges)	349
중복 연결(Edges with Duplicates)	698
전체 연결(Total Edges)	1,047

4. 주요 변인 조작적 정의

(1) 뉴스생산자

더즈(Deuze, 2003)의 온라인 저널리즘 분류를 기준으로 소셜미디어 뉴스생산자를 주류 언론, 인터넷 매체, 개인, 기관/단체, 정부로 구분했다.



(2) 청년 담론 주요 내용

청년 담론은 유튜브 헤드라인을 기준으로 분석 유목을 정했다. 분석 유목을 청년 관련 정부 정책(청년 정책, 청년계좌), 청년 일자리, 청년 생활실태(청년실태, 청년거주 실태), 저출산, 정부 정책(국민연금 고갈), 청년 취업(청년 정치인), 해외 청년 문제로 분류했다. 각 유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4> 청년 담론 관련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예시
청년 관련 정부 정책	청년 정책	청년 예산, 청년 소통, 청년 보좌역 신설
	청년계좌	청년도약계좌 지난해 청년 희망 저축 해약자 늘어 신혼부부 혼인신고 미뤄 : 대출 조건 때문에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취업난, 명예퇴직, 실업률, 고립 청년
청년 생활 실태	청년실태	식비, 쉬는 청년, 무기력, 결혼하지 않는 이유, 사채 분교에 대한 생각, 청년 가치관, 청년 고독사, 고립, 은둔 청년, 빈부격차 청년 크리에이터
	청년거주 실태	전세 사기, 월세 선호, 주거 환경
저출산	인구소멸	저출산 지역 인구 소멸
정부 정책	국민연금 고갈	청년층 인구 감소
청년 취업	청년 정치인	청년 정치인 인터뷰
해외 청년 문제	중국취업난	
	해외 청년 취업난	

청년 담론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 정책이 31.6%로 가장 많았고, 청년계좌가 16.4%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청년실태 15.3%, 청년 일자리 14.1%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과 청년계좌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이외에 청년실태, 청년 일자리 등 청년들의 삶을 조명한 기사가 많았다.

〈표 5〉 청년 담론 관련 주요 내용 빈도 분석 결과

		빈도	퍼센트
주요 내용	중국 취업난	11	6.2
	인구소멸	16	9.0
	청년계좌	29	16.4
	청년 정책	56	31.6
	청년 일자리	25	14.1
	청년실태	27	15.3
	청년거주실태	8	4.5
	청년 정치인	5	2.8
	전체	177	100.0

(3) 청년 담론 정서

청년 담론에 대한 정서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구분했다. 긍정은 청년이나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부정은 청년이나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 비호의적이거나 비난, 비판을 나타낸 것이다. 중립은 긍정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지 않거나 청년 정책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 것이다.

〈표 6〉 정서

종류	조작적 정의	세부 예시
긍정	청년, 청년 관련 정책이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내용, 청년 정책을 지지	청년계좌 최고 금리 6%,
부정	인구감소, 결혼 포기, 실업 등 청년, 청년 관련 정책이 부정적이거나 비호의적인 내용, 청년 정책 반대	
중립	청년 정책을 사실 중심으로 기술 긍정이나 부정적 정서가 드러나지 않음	

유튜브 동영상 정서를 분석한 결과 부정이 44.1%로 긍정 42.9%보다 약간 많았다. 중립은 13.0%를 차지했다.



〈표 7〉 정서 빈도 분석 결과

		빈도	퍼센트
정서	긍정	76	42.9
	부정	78	44.1
	중립	23	13.0
	전체	177	100.0

이러한 분석 유목을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 분석지는 다음과 같다.

[내용 분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 종류(대분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 2. 신문 3. 라디오 4. 인터넷 매체 5. 개인 6. 정부 7. 기관단체 8. 지역 언론 ■ 매체 종류(소분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상파 2. 종편 3. 보도 4. 라디오 5. 신문 6. 라디오 7. 인터넷 매체 8. 개인 9. 정부 10. 기관단체 11. 지역 12. 지역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긍정 2. 부정 3. 중립 ■ 주요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취업난 2. 인구소멸 3. 청년계좌 4. 청년 정책 5. 청년 일자리 6. 청년실태 7. 청년거주실태 8. 청년 정치인

■ 분석 결과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청년 담론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누가, 어떤 메시지를 확산하는지 분석했다.

1. 연구 문제 1: 청년 담론 확산 주체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에 공존하는 다양한 뉴스생산자 중에서 영향력자(influential)를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수집한 동영상의 뉴스생산자를 내용분석 한 후 동영상 점유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77개의 동영상 중에서 방송이 57.6%로 가장 많았고, 정부 18.6%, 개인 11.9% 순으로 나타나 청년 담론과 관련해 여러 공중의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방송을 제외한 언론 매체로는 인터넷 매체가

4.0%로 많았고, 신문, 라디오, 지역 언론은 각각 1.7%에 불과했다(표 6). 방송을 조직의 속성에 따라 구분해 보면 지상파가 40.1%로 가장 많고 보도 11.3%, 종편 5.1%, 지역방송 1.1% 순이었다(표 7). 소셜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뉴스 소비 매체로서 텔레비전과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결과는 유튜브에서 전통 매체 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적지 않고 지상파가 이용자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소셜미디어 뉴스생산자 빈도 분석

		빈도	퍼센트
매체 종류	방송	102	57.6
	신문	3	1.7
	라디오	3	1.7
	인터넷 매체	7	4.0
	개인	21	11.9
	정부	33	18.6
	기관단체	5	2.8
	지역 언론	3	1.7
	전체	177	100.0

〈표 9〉 소셜미디어 뉴스생산자 빈도 분석(세부)

		빈도	퍼센트
매체 세부	지상파	71	40.1
	종편	9	5.1
	보도	20	11.3
	라디오	3	1.7
	신문	3	1.7
	인터넷 매체	7	4.0
	개인	21	11.9
	정부	25	14.1
	기관정책	5	2.8
	지역	8	4.5
	지역 언론	3	1.7
	지역방송	2	1.1
	전체	177	100.0

다음으로 여러 뉴스 생산 주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봤다. 청년 담론과 관련해 유튜브 동영상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한 결과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가장 많은 동영상 이 검색된 방송이 청년 담론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방송은 청년도약계좌(18.6%)와 청년 정책(17.8%) 등 정부의 정책 홍보를 많이 다뤘다. 정책 홍보와 함께 청년 일자리(16.7%), 청년실태(15.7%)와 같은 청년이 처한 문제도 조명했다. 인구소멸 문제를 다루면서 청년 세대의 결혼 포기, 저출산 문제를 보도했고(14.7%), 방송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취업난도 다뤘다(10.8%). 인터넷 매체(71.4%)와 개인(33.3%)은 청년 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뤘다. 정부나 기관/단체는 청년 정책을 홍보했다(각각 57.6%, 60.0%). 정부는 청년 정책 > 청년계좌 > 청년 정치인 순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청년들이 처한 심각한 현실은 방송에서 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매체 종류별 청년 담론 교차분석 결과

			매체 종류								전체
			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 매체	개인	정부	기관단체	지역언론	
세부 내용	중국 취업난	빈도	11	0	0	0	0	0	0	0	11
		%	10.8%	0.0%	0.0%	0.0%	0.0%	0.0%	0.0%	0.0%	6.2%
	인구소멸	빈도	15	0	0	0	0	0	1	0	16
		%	14.7%	0.0%	0.0%	0.0%	0.0%	0.0%	20.0%	0.0%	9.0%
	청년계좌	빈도	19	0	0	0	4	6	0	0	29
		%	18.6%	0.0%	0.0%	0.0%	19.0%	18.2%	0.0%	0.0%	16.4%
	청년 정책	빈도	18	3	0	5	7	19	3	1	56
		%	17.6%	100.0%	0.0%	71.4%	33.3%	57.6%	60.0%	33.3%	31.6%
	청년 일자리	빈도	17	0	2	1	3	1	1	0	25
		%	16.7%	0.0%	66.7%	14.3%	14.3%	3.0%	20.0%	0.0%	14.1%
	청년실태	빈도	16	0	1	1	5	2	0	2	27
		%	15.7%	0.0%	33.3%	14.3%	23.8%	6.1%	0.0%	66.7%	15.3%
	청년거주 실태	빈도	6	0	0	0	2	0	0	0	8
		%	5.9%	0.0%	0.0%	0.0%	9.5%	0.0%	0.0%	0.0%	4.5%
	청년 정치인	빈도	0	0	0	0	0	5	0	0	5
		%	0.0%	0.0%	0.0%	0.0%	0.0%	15.2%	0.0%	0.0%	2.8%
전체		빈도	102	3	3	7	21	33	5	3	17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 92.050$, $df = 49$, $p < .000$

2. 연구 문제 2: 청년 담론 정서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뉴스생산자들이 청년과 관련해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의 헤드라인을 분석했다. 헤드라인에 나타난 정서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구분하고, 매체 종류별 정서를 교차 분석했다. 방송은 부정 정서가 63.8%로 긍정 26.5%보다 많았다. 신문은 모두 긍정 정서를 나타냈고(100.0%), 인터넷 매체와 개인도 긍정 정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각각 57.1%, 47.6%). 정부와 기관/단체는 긍정 정서가 매우 높았다(각각 81.8%, 60.0%).

〈표 11〉 매체 종류별 정서 교차분석 결과

			매체 종류								전체
			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 매체	개인	정부	기관단체	지역언론	
헤드라인 정서	긍정	빈도	27	3	1	4	10	27	3	1	76
		%	26.5%	100.0%	33.3%	57.1%	47.6%	81.8%	60.0%	33.3%	42.9%
	부정	빈도	65	0	1	3	6	1	1	1	78
		%	63.7%	0.0%	33.3%	42.9%	28.6%	3.0%	20.0%	33.3%	44.1%
	중립	빈도	10	0	1	0	5	5	1	1	23
		%	9.8%	0.0%	33.3%	0.0%	23.8%	15.2%	20.0%	33.3%	13.0%
전체		빈도	102	3	3	7	21	33	5	3	17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 52.283$, $df=14$, $p < .000$

다음으로 세부 내용과 정서를 교차 분석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폈다. 〈표 10〉을 보면, 긍정 정서는 청년 정치인과 청년 정책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년거주 실태의 50.0%, 청년계좌의 37.9%가 긍정 정서를 나타냈다. 이밖에는 모두 부정 정서가 많았다. 중국 취업난이 90.9%의 부정 정서를 나타냈고, 청년 일자리 76.0% > 인구소멸 75.0% > 청년실태 74.1% 순으로 부정 정서가 많았다.

〈표 12〉 청년 담론 세부 내용별 정서 교차분석 결과

			세부 내용								전체
			중국 취업난	인구 소멸	청년 계좌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청년실태	청년거주 실태	청년 정치인	
헤드라인 정서	긍정	빈도	1	2	11	46	5	2	4	5	76
		%	9.1%	12.5%	37.9%	82.1%	20.0%	7.4%	50.0%	100.0%	42.9%
	부정	빈도	10	12	7	7	19	20	3	0	78
		%	90.9%	75.0%	24.1%	12.5%	76.0%	74.1%	37.5%	0.0%	44.1%
	중립	빈도	0	2	11	3	1	5	1	0	23
		%	0.0%	12.5%	37.9%	5.4%	4.0%	18.5%	12.5%	0.0%	13.0%
전체		빈도	11	16	29	56	25	27	8	5	17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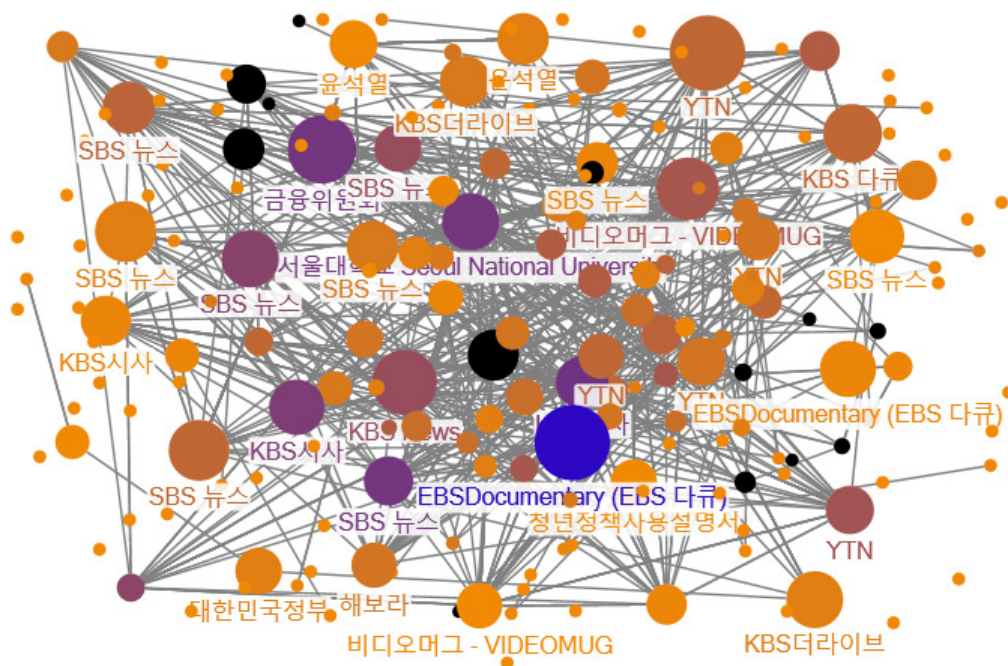
$\chi^2 = 99.965$, $df=14$, $p < .000$

3. 연구 문제 3: 청년 담론 관련 뉴스생산자의 영향력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매체별 영향력 분석 결과:전체 동영상 네트워크/ 매체별 그룹 네트워크/ 정서별 그룹 네트워크

여러 뉴스생산자 중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그림 3]은 전체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매개 중심성이 클수록 보라색을 나타내는데, EBS 다큐, 금융위원회, 서울대학교, KBS 뉴스, 비디오 머그의 매개 중심성값이 커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드의 크기는 조회 수를 나타낸다. EBS 다큐, YTN, 금융위원회, 서울대학교 KBS News, SBS 뉴스의 조회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담론과 관련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정부(금융위원회), 기관(대학교) 등 다양한 뉴스생산자가 영향력을 나타내 소셜미디어가 여러 의견이 생산하고 확산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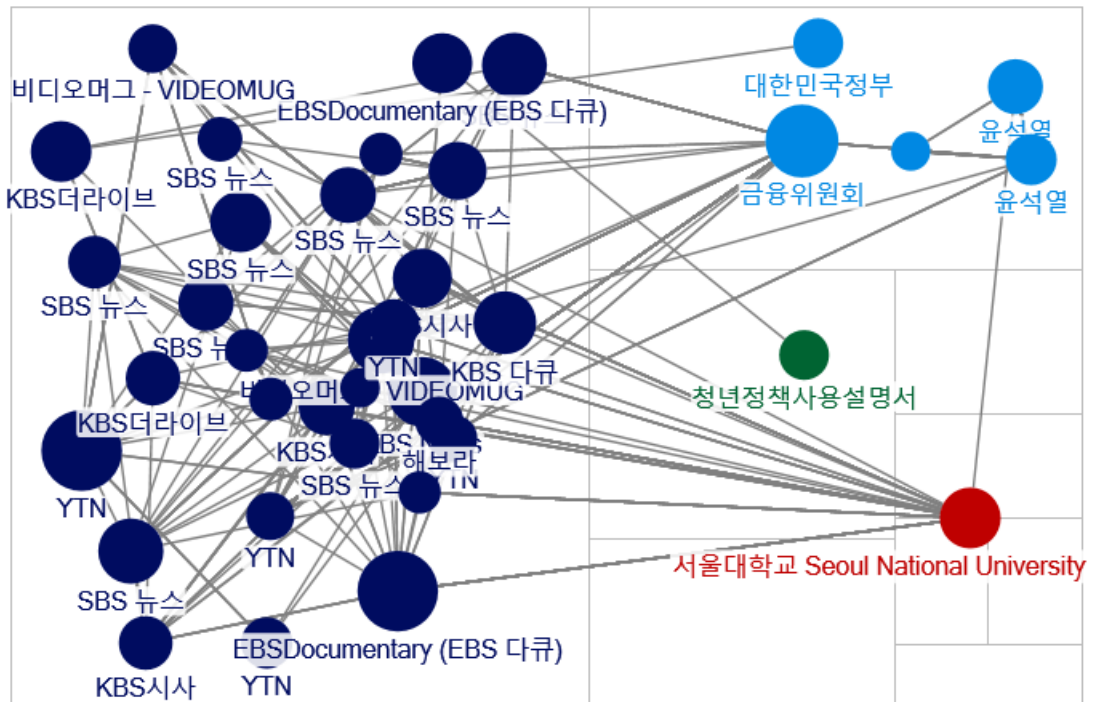
[그림 3] 청년 담론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이 클수록 보라색, 노드의 크기는 조회 수를 나타냄)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매체별로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매체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기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언론사는 YTN, EBS 다큐, KBS 다큐, SBS 뉴스의 영향력이 컸다. 개인 채널은 청년 정책 사용설명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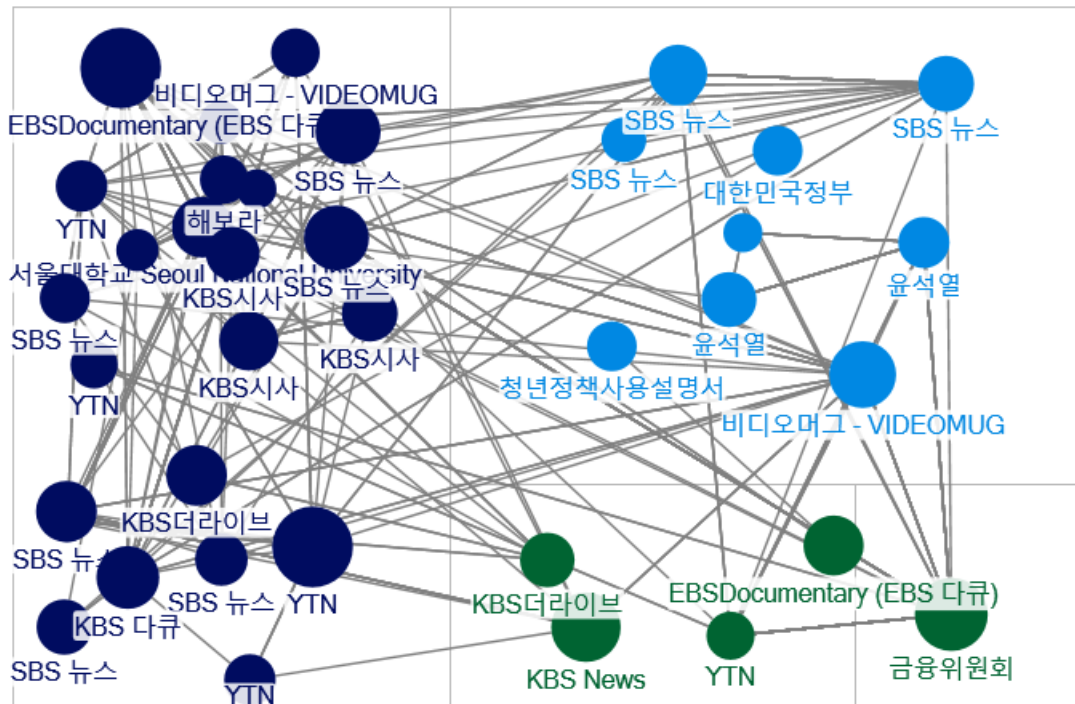
[그림 4] 청년 담론 유튜브 동영상 매체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이 클수록 보라색, 노드의 크기는 조회 수를 나타냄)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정서별로 그룹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림 5]에서 하늘색은 긍정, 곤색은 부정, 초록은 중립을 나타낸다. 긍정 정서를 나타내는 동영상 중에서는 비디오 머그, SBS 뉴스, 윤석열, 대한민국정부, 청년 정책 사용설명서의 영향력이 컸다.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동영상 중에서는 영향력이 큰 동영상이 많았는데, EBS Documentary, SBS 뉴스, KBS 시사가 영향력 상위였다. 중립은 KBS와 금융위원회가 영향력 상위로 나타났다.

[그림 5] 청년 담론 유튜브 동영상 정서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이 클수록 보라색, 노드의 크기는 조회 수를 나타냄)



Created with NodeXL (<http://nodexl.codeplex.com>)

(2)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 10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 10을 살펴본 결과, 중국 취업난을 다룬 YTN의 연결 중심성이 21, 매개 중심성이 69.3020으로 유튜브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용자 반응도 활발했는데, 조회 수 10,024였다. 다음으로 인구소멸을 주제로 한 EBS Documentary가 연결 중심성 24, 매개 중심성 689.961로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이 동영상의 조회 수는 11,765, 좋아요 123, 댓글 수 121개로 이용자 반응 역시 활발했다. 다음으로 정부의 청년 정책을 홍보한 금융위원회와 KBS News 동영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정부 정책을 소개한 2개의 동영상을 제외하면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와 인구소멸을 다룬 동영상이 영향력 상위 10개에 포함됐다. 비디오 머그, KBS 다큐, 서울대학교에서 인구소멸을 다뤘고, SBS 뉴스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SBS 뉴스는 청년 세대를 ‘청년 백수,’ ‘성인 자녀는 쉬고....’ 등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청년과 노인 갈등을 헤드라인에서 강조했다.

〈표 13〉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 10 중심성 값, 헤드라인

저자 (author)	세부 주제	헤드라인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매개 중심성	이용자 반응		
						조회 수	좋아요	댓글 수
YTN	중국 취업난	'시한폭탄' 中 청년들...새로 등 장한 직업	6	15	693.020	10,034	64	91
EBS Documentary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외국인 없으면 지 금' 지방 경제 큰손 외국인 없 으면 돈이 돌지 않는 지방 경제 현실 인구 대기화 초저출생	24	0	689.961	11,765	123	121
금융위원회	청년 계좌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정 책인 청년도약계좌	15	5	562.608	142,961	1,886	1,210
KBS News	청년 계좌	청년도약계좌 12개 은행서 8 일 출시...최종금리 12일 결	11	4	509.660	982,726	6,076	6,440
비디오 머그	인구 소멸	205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 는 믿기 힘든 현실! 노인 VS 청 년 갈등에 가족까지 버린다?	9	14	468.417	1,101,376	4,806	3,504
SBS 뉴스	청년 일자리	'청년 백수' 126만 시대...취업 해도 금방 '사표' 왜?	2	16	445.820	582,054	5,541	1,388
SBS 뉴스	청년 일자리	"번듯한 직장" 옛말...청년들이 돌아섰다	6	11	442.391	6,947	71	88
KBS 다큐	인구 소멸	30분 리얼토크 - 초저출생 0.78 【청년】 청년들과 부모 들의 솔직한 목소리, 그들이 직 접 제안하는 정책	6	13	412.416	438,128	10,404	3,058
SBS 뉴스	청년 일자리	성인 자녀는 쉬고 부모는 일터 로...우리나라 취업자 현황	13	2	387.632	2,833,067	54,567	3,590
서울대학교	인구 소멸	초유의 저출산 고령사회 한국, 인구문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 가?	15	5	385.506	2,166	28	22

4. 연구 문제 4: 헤드라인의 정서별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청년 담론 관련해서 긍정, 부정 정서를 나타낸 헤드라인에 대해 의미연결망 분석했다. 먼저, 긍정 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 보좌역, 취업 1주년, 미래, 혁신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컸는데, 청년 정치인에 주목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최고이고, 미래의 주역이라고 언급한 것을 강조했다. 청년 정책, 청년도약계좌, 출시, 5천만 원, 금리는 청년들이 5년간 적금을 부으면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단어이다. 긍정 정서를 담은 헤드라인을 보면, 청년들이 보좌역으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이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호명함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표 14〉 긍정 정서 영향력 상위 단어 20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청년	83	11918.558	청년이	12	1020.000
청년보좌역	32	3756.854	최고	20	894.488
청년 정책	44	3727.814	청년도약계좌	23	867.975
대한민국	33	2673.792	윤 대통령	40	745.847
미래	38	2281.792	출시	15	346.811
만난	31	1610.781	금리	15	287.381
혁신	26	1325.679	정의롭고	22	281.144
최대	25	1154,240	취임 1년	17	179.571
넣으면	16	1027.151	5천만 원	12	157.204
윤석열	11	1020.000	점검회의	18	150.131

부정 정서를 나타낸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청년이 연결 중심성 116, 매개 중심성 41363.631로 가장 영향력이 컸고, 이어서 중국,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주목했다.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뒷목 잡는 시진핑’을 부각했다. 언론이 청년 세대 문제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저출산이다. 저출산과 함께 지방 소멸 문제를 다루면서 전남 등 지방의 청년 나이가 46세까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청년 세대의 취업난을 쟁점화했는데, ‘한숨’이라는 단어로 청년이 처한 현실을 보여줬다. 언론에서 세대 간 갈등을 부각하는 현상도 볼 수 있는데, 2030 세대와 4050 세대, 청년과 노인의 갈등 구조로 청년 문제에 접근했다. 현 정부에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문제를 짚으면서 정책의 한계를 강조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쟁점화했는데,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월세에 ‘간헐’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표 15〉 부정 정서 영향력 상위 단어 20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청년	116	41363.631	초 저출생	23	2486.079
중국	51	12033.221	지방	16	1745.000
청년들	74	11438.194	떠나는	11	1745.000
현실	27	4061.917	청년들이	9	1400.000
2030	23	3988.248	청년도약계좌	10	1400.000
저출산	27	3936.214	목소리	16	1400.000
금리	11	3440.000	한숨	20	1123.024
시작됐다	19	3396.786	취업난	20	823.375
민주당	14	2768.000	기회	12	648.810
않는	16	2518.107	간헐	15	648.238

■ 결론 : 미디어에서 재현한 청년 세대

1. 청년 담론 분석 결과 요약

다양한 뉴스생산자가 공존하는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는 청년 담론을 살피기 위해 청년 담론 관련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에 공존하는 다양한 뉴스생산자가 청년 담론과 관련해 여러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 매체 등 언론 매체 외에 개인, 기관/단체, 정부, 지역언론 등 다양한 뉴스생산자가 메시지를 생산했다. 정부와 기관/단체는 청년 정책, 청년도약계좌, 지역의 청년 정책 등을 알렸고, 방송은 정부 정책 홍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청년 생활 환경 실태, 청년거주 실태 등 한국사회의 청년이 당면한 문제를 다뤘다.

소셜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 과정에서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메시지가 생산되고 확산하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언론은 청년도약계좌와 각 지역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 홍보에 언론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헤드라인에 대한 정서를 분석한 결과 방송이 부정 정서가 가장 많았고, 정부와 기관/단체는 긍정 정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년 담론의 주요 내용과 정서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긍정 정서는 청년 정책, 청년계좌, 청년 정치인이 많았고, 중국 취업난, 청년 일자리, 청년거주실태, 인구소멸이 부정 정서가 많았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소셜미디어의 여러 뉴스생산자 중에서 방송이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전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셋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뉴스생산자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언론사, 정부, 기관(대학교) 등 다양한 뉴스생산자의 메시지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정서는 정부가, 부정 정서는 언론사가 확산했다.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 10을 보면, SBS 뉴스, YTN, KBS 다큐, 금융위원회, 서울대학교가 차지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 홍보 외에 청년 일자리, 인구소멸, 중국 취업난 등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다뤘다.

넷째, 정서별로 헤드라인에 대해 의미연결망 분석한 결과, 긍정 정서 관련해서는 청년 보좌관, 미래세대, 국정의 동반자 등이 있고, 부정 정서 관련해서는 초저출산, 한숨, 취업난 등 부정적인 단어가 영향력 상위에 있었다. 언론은 청년 세대와 노인, 2030 세대와 4050 세대를 가르면서 취업 문제에 접근했다.

2.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뉴스생산자를 통해 재현된 청년

소셜미디어의 뉴스생산자들은 청년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봤다. 호명(naming)을 통해 청년을 규정짓



고 있는데, 먼저 정부는 청년 세대를 ‘미래세대의 희망’이고, ‘국정의 동반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에 진출해 취임 1주년은 맞은 청년 보좌역을 부각해 나이와 관계없이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청년도약 계좌를 통해 5년이면 누구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반해 청년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면, (2030 세대) 알콜 중독자, 무주택자 (청년), (청년) 백수, (월세에 갇힌) 청년 세대처럼 오늘날 청년이 처한 현실을 드러내는 수식어가 많았다. 청년 연체율이 증가한다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 비율이 높다는 등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명했다. 청년들이 집을 포기했다면서 전세 사기로 인해 월세에 갇힌 청년들이나 한 평에 삶을 의지하는 청년 문제를 다뤘다. 청년 세대의 빈곤이 중 장년층까지 이어진다면 청년 세대부터 빈부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취업난도 언론에서 주목한 이슈 중 하나였는데, 청년 백수라고 호명하면서 그냥 쉬겠다는 2030 세대를 부각했다. 자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것인데, ‘성인 자녀는 쉬고, 부모는 일터로.’ ‘노인 vs 청년 갈등’처럼 취업난을 세대 갈등 문제로 조명한 것은 문제를 부각하고 해결하기 위한 보도로 보기 어렵다. 심지어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서 ‘4050 우리는?’처럼 명퇴와 실업으로 어려움에 놓인 4050 세대의 현실을 강조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도약계좌’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다뤘다. 높은 금리와 부모의 재산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5년이라는 기간도 부담스럽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년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은 중국의 살인적인 취업난과 취업을 포기한 세계 청년들 문제도 다뤘다. 특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살인적이라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님을 부각했다.

소셜미디어의 뉴스생산자 중 하나인 언론에서 재현된 청년은 취업 의지가 없고 자발적으로 쉬는 존재이다. 취업 의지가 강한 노년 세대와 대비하면서 취업 문제를 청년의 의지 문제로 본다. 청년 실업률은 어두운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 사원 모집을 줄여 가업경영 구조를 개설했다는 기업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년의 낮은 취업률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해야 한다.

물론 언론이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 불가능한 한국의 주거 현황을 전달하고, 청년 세대의 빈부격차가 이들이 중장년층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면 청년 문제를 사회의 계층 간 문제로 다루기도 했다. 언론이 청년 세대보다 노년 세 개의 취업률이 더 높다는 현실을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청년 개인에게 돌리거나 세대 간 갈등 문제로 접근한다면, 청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다.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세대 안의 여성

청년 담론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분석 결과와 별도로 2, 30대 여성이 미디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폈다. 언론에 나타난 청년 세대의 여성은 첫째, 진취적이고 독립적이다.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로 취업한 MZ 세대를 조명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능력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연세대를 졸업한 여성도 ‘야쿠르트 아줌마’로 취업했다면서 기업체 취업과 달리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왜 젊은 여성들이 4, 50대 주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직종에 몰리는지 사회 구조적 원인은 없는지 진단해야 한다.

둘째, 30대 알콜 중독자, 마약 의심 20대 여성, 또래 살인 정유정 등 젊은 여성의 일탈 행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알콜 중독, 마약, 살인은 사회 통념상 젊은 여성의 이미지와 거리가 먼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입장에서는 뉴스 가치가 높다. 다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2, 30대 남성의 알콜 중독, 마약 문제도 조명하고 젊은 세대가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은 성범죄 피해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주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여성의 87%가 연인의 과도한 집착도 데이트 폭력으로 인지하고⁶⁾ 데이트 폭력 10건 중 2건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⁷⁾로 드러난 상황에서 언론이 데이트 폭력을 자주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예전과 달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접근이 많이 달라졌다. 앞에서 언론이 사건을 호명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데이트 폭력 대신에 교제 폭력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⁸⁾. 한겨레는 여가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데이트라고 지칭하면 낭만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성범죄의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명명하기보다는 가해자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인폭력’, ‘파트너 폭력(유엔)’으로 부르기도 한다. 언론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드러냄으로써 사건의 책임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미디어에서 청년 세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피기 위해 유튜브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유튜브의 다양한 뉴스생산자가 묘사한 청년을 분석했다. 주류 언론 중에서 방송은 청년 세대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전달했으나 청년 백수,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 등 청년 세대를 부정적으로 명명했고, 취업난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 개인의 의지에 주목해 개인적 문제로 접근했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언론은 세대 간 갈등을 강조하는 보도 태도를 자주 보였다. 한정된 일자리를 세대에 나눠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청년 세대 일자리와 4050 일자리, 은퇴 이후의 일자리를 구분하

6) 女 87%·男 75% “연인의 과도한 집착은 데이트 폭력”, 세계일보 2023년 9월 30일 자

7) 데이트 폭력, 10건 중 2건은 강력범죄, 더파워, 2023년 8월 9일자

8) ‘데이트 폭력’ 대신 ‘교제 폭력’이라 쓰겠습니다. 한겨레 2023년 4월 29일 자



고, 각각 산업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전망을 하는 것이 청년 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의 청년 실업 문제, 취업난을 다룸으로써 한국의 실업률, 취업난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세계 경기의 침체, 전쟁으로 수출에 영향을 받고, 금융 불안 등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나 한국의 경제 구조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 세대와 2.30대 여성을 구분해서 따로 언론 보도를 살핀 결과를 보면 젊은 여성은 범죄 사건의 피해자,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했다. 독립적인 여성상을 부각했으나 이들이 왜 좋은 학벌과 실력을 갖추고도 취업 경쟁에서 배제됐는지 구조적인 접근은 부족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점에서 기성세대는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취업 교육 기회 제공, 실업급여 지원 등 단기적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나 전세 사기, 기업의 신입 사원 공채 취소 등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언론은 정부의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문제는 없는지 비판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기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don, H. & Wane, S.(1984). Media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toward an Integration and of Theory and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11(3), pp. 323-340.
- Bernburg, J. G.(2009). Labelling Theory in book : *Handbook on Crime and Deviance*, DOI: 10.1007/978-1-4419-0245-0_10
- Deuze, M. (2003) 'The web and its journalism: Considering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types of newsmedia online', *New Media & Society*, 5(2), pp. 203-230.
- Entmann, R. M.(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 51-58.
- Reese, S. & Shoemaker, P.(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New York:Long Man, 1991), Second Edition. 김원용(역)(1996), 『미디어사회학』. 서울: 나남.
- Hansen, D. Shneiderman, B., Smith, M.A.(2011). *Analyzing Social Media Networks with NodeXL: Insights from a Connected World*. Burlington: MK
- 손영준, 홍주현(2018). TV의 성범죄 보도 연구: 뉴스의 주목, 정보 공개, 귀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2권 3호, pp. 31-68.
- 오세욱, 송해엽(2019). 「유튜브 추천알고리즘과 저널리즘」,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홍주현(2017).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hierarchy)에 따른 매체 가시성(visibility)의 양과 질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pp. 520-534.
-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